

“한국불교 배우러 와세요~”

조계종 ‘제1회 외국인 스님 한국불교연수’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수련회가 처음 열렸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복지 세영)는 4월 7~9일 2박 3일간 공주 마곡사 인근 한국불교전통문화센터에서 ‘제1회 외국인 스님 한국불교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 참가한 러시아, 미국, 리투아니아, 몽골, 스리랑카, 티베트, 방글라데시 등 15개국 29명의 스님들은 한국불교를 배우고,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고찰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한국불교를 공부하게 된 각자의 인연과 자국 불교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화두 참선 후 학생비자와 종교비자 발급 등 출입국 규정과 이주민센터 활동지원책 등을 안내받았다. 이중 출입국 규정 소개는 그동안 몰랐던 비자변경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참가스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화두참선으로 한국불교를 느끼고있다.

둘째 날에는 마곡사 참배를 시작으로 한국불교 전래과정과 현재 종단 구성, 조계종과 승가 교육 체계, 사찰과 탐 구조를 통한 한·중·일 동북아불교 비교강좌가 진행됐으며, 정림사지와 무명왕릉 등 백제불교문화권 답사도 이어졌다.

이날 승가대학 등 각 지역에서

혼자 공부하던 스님들은 고국 도반 스님들을 만나 불교공부에 대한 열의를 더욱 다졌으며, ‘외국인 수행자의 역할’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남방과 대승, 서양불교권의 활발한 교류도 이어졌다.

연등국제선원에서 온 키르기스스탄 일조 스님을 비롯한 참가 스

님들은 “다른 여러 외국인 스님들과 한국불교를 논하는 이런 자리는 한국생활에서 드문 경험이다. 다양한 토론과 논의로 수행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력을 다졌다.

한국불교소개와 조계종 안내 등을 직접 진행한 사회국장 재경 스님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고, 각종 불교교류를 다져 불법이 더욱 펼쳐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연수를 개최하고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스님은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에서 초청해 조계종 사찰에 기거하며 선을 배우는 스님부터, 종단을 망라해 은사 스님을 따라 한국에서 불교를 배우는 스님, 동국대와 금강대 등에서 학교교류를 위해 체류하는 스님까지 그 구성은 다양하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지하철·철도역서 만나는 ‘잔잔한 감동’

풍경소리, 오근장역 시작으로 전국 300여 역에서 글 전시회

숨쉬기도 바쁜 세상이다. 한 줌의 여유도 없는 도시인들에게 (새한국 불교종단협의회 부설) 풍경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해자·도선사 주지)가 희망과 여유를 전달한다.

풍경소리는 4월 1일 충북선 오근장역, 동해선 강릉역을 시작으로 전국 300여 지하철(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철도역에서 경구와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작가의 글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하철·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님께 명상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를 찾는 지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번 전시회는 △지하철은 4월 6일 대구지하철 대곡역을 시작으로 30개 역사, 4월 13일 서대문네거리역을 시작으로 24개 역사, 5월 18일 평택역과 녹양역을 시작으로 수도권광역전철 51개 역사, △서울도시철도 공사소속 5, 6, 7, 8호선은 5월 4일 암사역을 시작으로 63개 역사 △서울메트로 1, 2, 3, 4호선은 4월 20일 홍익대역을 시작으로 70여개 역사에서 연말까지 총 300여 회가 진행된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총장은 “그 동안 쉽고 편하게 불법을 전하는 포교매체로 평가 받아 2004년부터 연

10여 회씩 개최해오던 전시회를 지난해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 공사 소속 70여 개로 확장한데 이어 올해 300여 곳에 개최하게 됐다”며 “지난 10년간 발행한 포스터 중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담은 글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10주년을 맞이한 풍경소리는 지하철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풍경소리 인지도, 호감도, 종교에 대한 생각 등을 설문조사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새로운 포교전략을 구상한다. 이상연 기자

도선사 위탁 운영 강북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식

경제 위기로 인한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도선사주지 해자 스님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강북청소년지원센터에 청소년지원센터(관장 김준기)가 문을 열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4월 8일 강북청소년수련관 만나 소극장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강북구 내 지역자원과 연계해 현장중심, 맞춤형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자 스님(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지



도선사 위탁운영하는 서울시립강북청소년 지원센터가 4월 8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해성 스님, 해자 스님.

원센터를 개소할 것은 기쁜 일이다”며 “깨달음으로 하나돼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해성 스님(사회

복지법인 해명복지원 상임이사), 해자 스님, 김현풍 강북구청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02)993-1388 이상연 기자

(사)지혜로운여성 여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기관인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

4월 28일~6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실시된다.

‘여성의 지혜로 세상의 빛을’을 주제로 열리는 교육은 불교적 상생의 이념에 기초해 일하는 여성의 조화로운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발전을 위한 참여, 실습위주의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참나와 만나는 여행 △우리와 나, 관계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여성인재개발센터장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초의자명상원장 지장 스님(대원정사 주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 등이다. (02)722-2101 이상연 기자

센스 있는 오빠 언니들의 ‘끼와 재주’ 신바람

서울·경인지역 사찰 청소년 연합법회 개최

서울·경인지역 사찰 청소년들이 참된 청소년 불자를 발원하고 끼와 재주를 선보이는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4월 5일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총) 주최,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가 주관한 서울·경인지역사찰 청소년 연합법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법회 현장은 300여 명의 서울·경인지역사찰 청소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청소년들은 1부 법회에서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발원문을 낭독하며 참된 불자로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될 것을 발원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상임이사 상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학업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흥겹고 재미있는 연합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에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4월 5일 서울·경기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능인선원 청소년법회 법우들이 난타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한 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서울 봉은사, 화성 신흠사, 서울 능인선원, 서울 조계사

청소년들이 주말마다 틈틈히 준비한 풍물공연, 댄스, 개그 공연 등의 장기 발표와 B-BOY 초청 공연이 진행됐다. 이상연 기자

신행계시판

●담마코리아 ‘위빠사나 수행’=담마코리아는 경북 상주 푸른누리에서 집중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4월 18~29일, 5월 13~24일, 6월 17~28일, 7월 1~12일, 7월 17~28일 진행되는 집중수행은 SN, 고영가 법사의 육성 녹음테이프로도 한다. (054)536-9820

●불교 TV무상사 ‘법화경’ 신림 대법회=불교TV 무상사는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무비스님의 <법화경> 신림 대법회를 실시한다.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교재는 무상으로 보시. (02)3270-3300

●위빠사나선원 수행지도 특강=위빠사나선원 선원은 4월 23~27일 충남 전통면 붓다리마(구 지장사에서) 집중수행, 니까야에 근거한 수행지도 <대념처경> <아나빠나사띠> 특강을 실시한다. 동참비는 10만원으로 선착순 15명 접수가능. (041)868-3119

●서울 육조사 ‘선에 눈뜨는 강설, 서장’ 진행=서울 육조사는 4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육조사 선방에서 ‘선에 눈뜨는 강설, 서장(書狀)’을 진행한다. 선원장 현웅 스님의 직강으로 진행되며 동참비는 2만원. (02)925-0408

“목에 총을 들이대고, 선지식 한 명을 고르라면 춘성 스님을 꼽겠습니다”

-무비 스님 | 전 조계종 교육원장

춘성 - 무애도인 삶의 이야기

교보문고 종교분야 베스트셀러!

김광식 지음 | 446쪽 | 값 15,000원

만해 한용운의 제자 진정한 선승, 호탕한 법문으로 세상을 흔든 큰스님

“갈 때도 無! 올 때도 無! 항상 無 하세요” -조선일보

무애 선승 춘성 ‘거침없는 무소유’ -한겨레신문

“나, 중(僧)대장이다” -경향신문

“결출하고 막힘없던 춘성 스님, 신라 때 태어났다면 딱 원효” -문화일보

“내 본적은 살았다 죽었다 하는 XX야” -오마이뉴스

“대자유인 춘성 스님, 역사가 되다” -불교신문

“격의 언어로 禪心 일깨운 참 스승” -법보신문

“불교와 승려 본연의 자세를 찾아서” -강원일보

그 어린이 살았던 행적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어. 꺼지지 않는 불길이지. 춘성 스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거기에 뜻이 있었어요. 내 평생 그런 인상을 받은 분이 없어요.

-우승 스님 | 덕숭총림 수덕사 유나

노스님을 생전에 지근에서 모시고 수행했던 선객들이나 신도들은 한결같이 천하제일의 도인이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불교사에서 이만큼 수행을 철저히 하고 무애자재하신 도인인

춘성 노스님 같은 분이 현대사에서는 달리 없다고 하셨습니다.

-효림 스님 | 성남 봉곡사 주지·시인

이 책을 손에 잡는 순간, 춘성 큰스님에게 합장 삼배하고, 단숨에 경(經) 읽듯이 정신을 오로지하여 독파해 버렸다. 명작 영화 한편을 보는 법을 느꼈다.

-알라딘 독자 | 보경



춘성(1891~1977)은 근·현대불교 격랑의 중심지에서 승려로 그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한용운의 상좌로, 백용성과 함께 「화엄경,사상」을 전하였던 화엄법사로, 덕숭산 끝자락에서 정좌불의하였던 수행자로, 시대의 선승 민공회상에서 참선 수행을 하였던 긴화선 수행자로, 도봉산 망월사에서 수좌들을 지도하였던 어른으로, 저자거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흰색의 언어로 전하였던 스님으로, 수많은 보살들을 부처님 세상으로 이끌었던 큰스님이었다. 춘성 스님은 결망에 죽비 하나, 배놓은 물니 하나, 주인동록종, 그리고 땀 하나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무소유의 실천자였다.